

# 추석 가족 추모 예배 순서

| 주후 2013년 9월 19일 (음8월15일) 아침 |   | 사 회                                                  | 담 당 자   |
|-----------------------------|---|------------------------------------------------------|---------|
| 목                           | 도 |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故(고) _____, _____를 추모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 다 함 께   |
| 찬                           | 송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새찬301장, 통460장)                           | 다 함 께   |
| 기                           | 도 |                                                      | 가 족 중   |
| 성 경 봉 독                     |   | 살전 4:13-18                                           | 가 족 중   |
| 추모의 말씀                      |   | 부활신앙 (아래참조)                                          | 사 회 자   |
| 찬                           | 송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새찬559장, 통305장)                        | 다 함 께   |
| 추 모 사                       |   |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 감사의 제목들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 가 족 대 표 |
| 기                           | 도 |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2013년도 추석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 다 함 께   |

## 추모의 말씀(Message)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 앉아 ○○○님(들)을 추모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 모인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며 부활신앙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몇해 전(혹은 얼마전)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님을 슬픔과 아픔속에 하나님품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에 대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님이 우리와 영원히 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잠깐 이별해 있음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잠들었던 자들이 깨어나듯 ○○○님도 잠에서 깨어나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 말합니다. 부활은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별의 슬픔을 겪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 첫째,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소망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이 먼저 떠난 이들을 그리워하며 슬픔속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며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글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슬픔을 이기고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소망속에서 우리 곁을 떠난 ○○○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둘째,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4절~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이 예수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말씀하시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림을 살아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데살로니가교인들에게 오히려 자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과 즐거움, 즉 천국의 삶을 경험한 자들로 산 우리보다 그들이 더 앞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부활을 경험키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산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따라 먼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안에서 더욱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셋째, 부활신앙은 참된 위로와 격려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곳에서 주를 영접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죽은 자들에게도, 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가 한 신앙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들도 주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때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음안에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는 소망과 겸손, 그리고 참된 위로와 격려로 서로를 세워주는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 추석 가족 추모 예배 순서

| 주후 2013년 9월 19일 (음8월15일) 아침 |   | 사 회                                                  | 담 당 자   |
|-----------------------------|---|------------------------------------------------------|---------|
| 목                           | 도 |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故(고) _____, _____를 추모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 다 함 계   |
| 찬                           | 송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새찬301장, 통460장)                           | 다 함 계   |
| 기                           | 도 |                                                      | 가 족 중   |
| 성 경 봉 독                     |   | 살전 4:13-18                                           | 가 족 중   |
| 추모의 말씀                      |   | 부활신앙 (아래참조)                                          | 사 회 자   |
| 찬                           | 송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새찬559장, 통305장)                        | 다 함 계   |
| 추 모 사                       |   |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 감사의 제목물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 가 족 대 표 |
| 기                           | 도 |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2013년도 추석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 다 함 계   |

## 추모의 말씀(Message)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 앉아 ○○○님들을 추모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 모인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며 부활신앙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몇해 전(혹은 얼마전)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님을 슬픔과 이쁨속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에 대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님이 우리와 영원히 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잠깐 이별해 있음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잠들었던 자들이 깨어나듯 ○○○님도 잠에서 깨어나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 말합니다. 부활은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별의 슬픔을 겪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소망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을 향해 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려줄 것을 말씀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주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중에 아직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함께 추모하는 ○○○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4절~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이 예수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말씀하시며, "주께서 강림하실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림을 살아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대살로니가교인들에게 오히려 자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과 즐거움, 즉 천국의 삶을 경험한 자들로 산 우리보다 그들이 더 앞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부활을 경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산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믿음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부활신앙은 참된 위로와 격려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곳에서 주를 영접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죽은 자들에게도, 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가 한 신앙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들도 주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때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는 소망과 겸손, 그리고 참된 위로와 격려로 서로를 세워주고 신앙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